



## 프로폴리스의 시장동향과 산업화



김희성 본 협회 부회장 · 가보농산(주)대표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미국, 일본등지에 시장조사를 하였고 목포대학교 식품산업 기술연구센터와는 3년차 산학연 협동으로 연구중에 있다. 450년 양봉역사를 가진 일본 모리카와 건강당과 3년간 교류를 가지면서 기술제휴를 하여 현재 "바시소프로폴리스" 연질 캡슐을 생산하고 있다.

### ◆ 외국의 프로폴리스 시장과 상품 다변화

호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프로폴리스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제품도 차약, 비누, 화장품, 연고, 캡슐 등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프로폴리스의 시장규모가 250억(한화 2500억원)이나 되며 계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백화점, 약국, 도매시장에도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필자는 일본 모리카와 건강당의 초청으로 구마모토에 있는 공장을 두 번이나 방문 한 적이 있었는데 공장의 규모나 설비가 과학화 되어있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규모의 공장이 증축되고 있었다. 또한 모리카와 건강당은 매년 3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공장의 직원이 15명 내외였으며, 그 외의 인력은 사무 및 판매직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벤처기업이라 생각되어지며 도쿄에 사무실을 두고 유통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학술적 뒷받침도 넉넉하여 프로폴리스 기능성 연구에 대한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과등의 무수한 논문이 발표되어 기능 식품으로서의 입증은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양봉인 수를 합쳐봐야 고작 7천여명 미만이지만

프로폴리스 시장은 양봉인 자신들의 힘으로 성장시켜 왔으며, 특히 벌꿀유통, 가공 등도 그들의 장인정신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 ◆ 국산 프로폴리스의 우수성과 양봉인의 자세

우리 나라에서는 프로폴리스의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 아직 시장성은 좁지만, 외국제품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고, 호주, 일본 등의 여행객 가방에는 프로폴리스 제품이 담겨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평소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많은 전북대학교 박형기 교수는 국산프로폴리스의 우수성을 발표하였고, 목포대학교와 산학연 협동으로 브라질산, 중국산, 국산 프로폴리스에 대한 항균성에 대한 연구 결과 외국산보다 국내산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매우 희망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주대학교 차용호 교수도 권역별, 지역별로 프로폴리스를 채취하여 연구 준비중에 있어 머지않아 국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일정부분의 자리 매김을 하리라 믿는다.

일본 모리카와 건강당에서도 국내산 프로폴리스 원료를 수입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국내 양봉농가의 무관심이 문제이다. 물론 1군당 채취량이 350g내외라고 볼 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단 1g이라도 더 채취하도록 애써야 하겠다. 만약 국산프로폴리스가 우수하다고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양봉산물판매에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리라 본다. 현재 양질의 프로폴리스 채취방법이 연구 중에 있고 채취 기구 또한 개발 · 개선 중에 있으며, 관계학자에게도 용역을 주어 연구 중에 있다.



프로폴리스를 채취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개포 밑에 나일론망사를 같은 크기로 잘라 개포 밑에 덮어두어 채취하는 것이 최적이다. 이때에 꼭 주의 할 것은 수입대나 화학섬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목이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는 개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채취는 연중 2회 가능하다. 여름철에는 프로폴리스가 묻어있는 망을 냉동한 후 비비면 프로폴리스 원괴가 잘 떨어진다. 참고로 프로폴리스 원괴(봉교)를 용해하는데는 70%주정이나 에틸알콜에 용해 하는 것이 좋으며 빨리 용해시키려면 간혹 흔들어서 3개월 이상 추출하면 된다.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사용하는 만큼 채취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추출된 프로폴리스는 여과한 후 물에 타서 飲用한다. 상시 飲用하면 건강한 사람도 면역력이 증강이 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알콜로 추출된 프로폴리스액이 식품 공전 상 식품이 아닌 주류로 분류되어 있어 건강식품 허가가 불가능하고 이를 건강식품으로 판매했을 때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까운 일본도 처음엔 우리나라처럼 주류로 분류되었으나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고시 하였다. 본 협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기능식품 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위하여

꿀자도 프로폴리스 여과, 정제시설에 투자를 하였고 제품 생산 다양화에도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진행 하고 있다. 바이오프로폴리스 연질 캡셀 생산 외에도 녹차엑기스(프리페놀)를 함유하여 프로폴리스 목캔디와 세정제(여성용)를 특허 출원하였으며 프로폴리스 목캔디는 곧 시판하게 된다. 공해와 운동부족으로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프로폴리스야 말로 꿀벌과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도 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항생제복용이 가장 많다고 하니 자연 건강한 삶은 어려울 것이다. 면역력이 증강되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는 우리의 자생능력을 높여주므로 인류의 건강과 평화에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다. 단 1g의 프로폴리스라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양질의 프

로폴리스 제품을 바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공동감시 감독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한때 필자가 생산한 프로폴리스제품에서 메칠, 중금속이 검출되어 긴장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본인은 꿀벌을 보호 육성시키는데 앞장을 설 것이며, 프로폴리스의 메신저가 되어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양봉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양봉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 할 것을 약속하면서 새 천년의 역사 속에 올 한해가 양봉산업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아까시나무연구회 초청 중국학자 3인 내한

지난 7월 14일(금) 오후 아까시나무연구회 박용구교수의 초청으로 북경을 출발한 왕철리(중국아까시나무연구 책임자 62세), 이해호(하남성 정주시 중원구 중원신세기생태원 연구부주임 경제사, 36세), 배동주(통역, 36세)씨가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99년 아까시나무연구회의 중국방문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3인은 7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국내 아까시나무관련 연구기관 및 조림지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중국 서북부 지역에 조림할 수종선택을 위한 것으로 국내의 아까시나무의 특성을 조사하고 조림지를 견학하였으며 일정 중 난지도를 방문하여 일반 아까시나무보다 가시가 작고 잎이 큰 아까시나무를 발견한 것이 큰 성과라 했다. 또한 임목육종연구소,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 등을 방문하였고 국내 사방사업의 대표지로 손꼽히는 영일만 사방지구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수종선택 시 목재용, 사료용, 밀원용으로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북경 왕철리 외 2명 본 협회 방문